

IFS 국가 정책 제언 기업 공급망 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

KDI 정책대학원 김병구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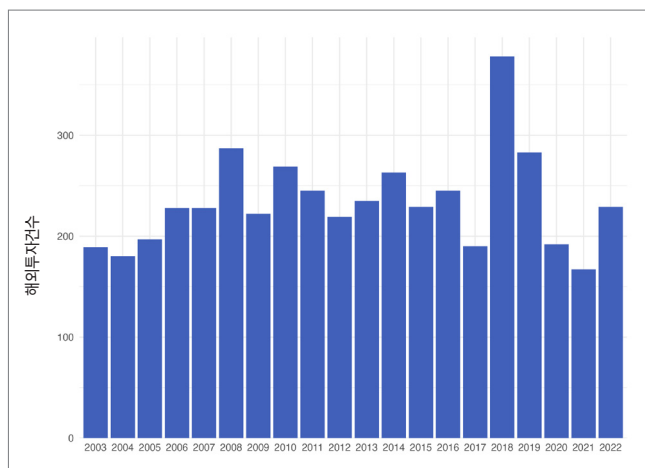


1 기업 주도의 공급망 세계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

- 1980년 이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주도의 공급망 세계화. 정보통신, 운송 기술의 발전과 관세 인하에 힘입어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글로벌 분업을 가속했으며, 한국 기업도 생산과 조달 네트워크를 해외로 확장해 왔음
- 공급망 확장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설계됨
- 각국 정부는 시장 왜곡 방지 규범 하에서 WTO,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지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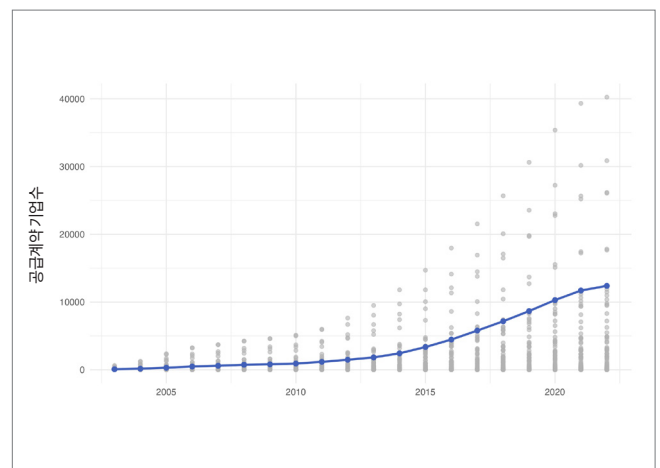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



경제안보 시대의 대두

- 2008 금융위기, 코로나 등 국제적 위기와 미중 갈등 본격화로 공급망 확장을 도왔던 규범이 역전됨. 반도체, 양자, AI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국가별 관세정책이 더해지며 국가안보와 정치적 목적이 경제논리에 결합되어 정책화되고 있음
-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된 글로벌 공급망이 경제안보 시대에는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잣대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품, 산업, 국가 단위에서의 담론에 집중되어, 공급망을 실제로 설계, 운용하는 기업이라는 행위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계약 건수



주: 파란색은 한국 기업을 의미함

2 한국 기업의 공급망 구조

한국 기업의 공급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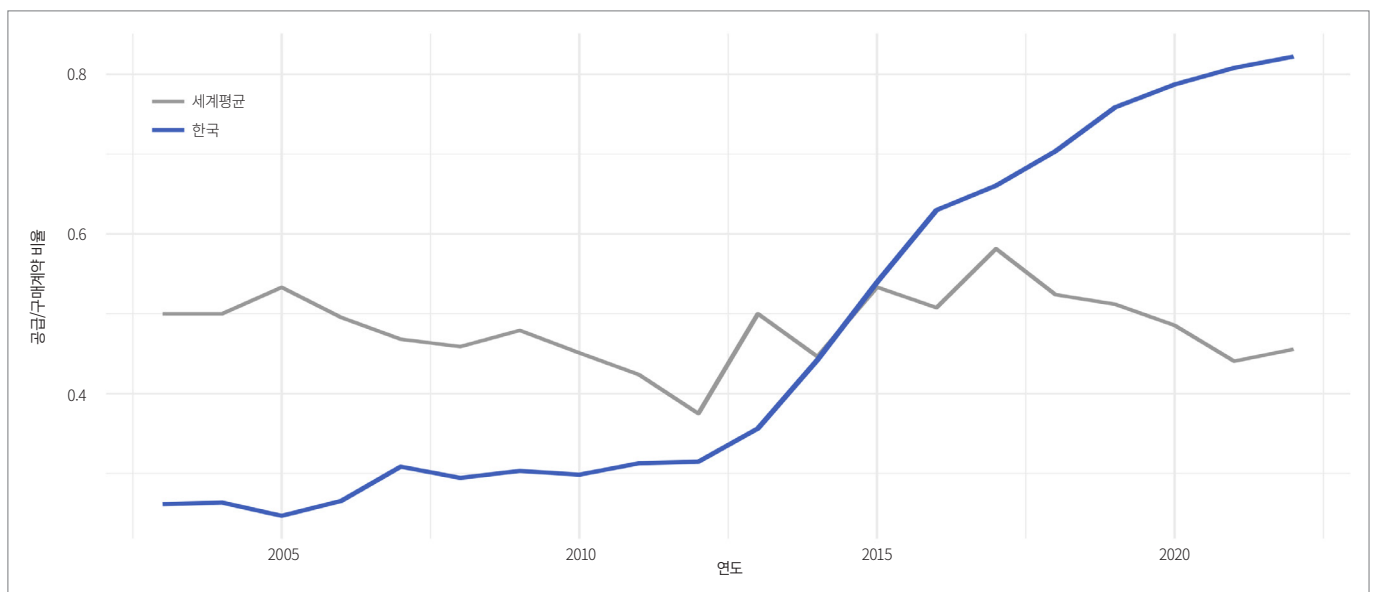
-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계약은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정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계약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 및 구매 계약은 대부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은 60%에 달함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장 많은 글로벌 공급망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세 기업이 한국 기업 글로벌 공급망 계약의 21%를 차지함
- 한국은 특히 공급계약의 비중이 구매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전방사업(upstream production)에 특화하는 특징을 보임

- 하지만 이는 산업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건설, 건설장비, OEM, 전자장비 부문에서는 공급계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통신장비, 제약,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부문에서는 구매계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표 1] 한국 기업 글로벌 공급/구매 계약 건수(Top 5)

기업명	공급계약	구매계약	비중(%)
삼성전자	678	1081	11.7
LG전자	276	491	5.1
현대자동차	76	563	4.2
삼성그룹	135	366	3.3
기아그룹	72	233	2

[그림 3] 공급계약/구매계약 비율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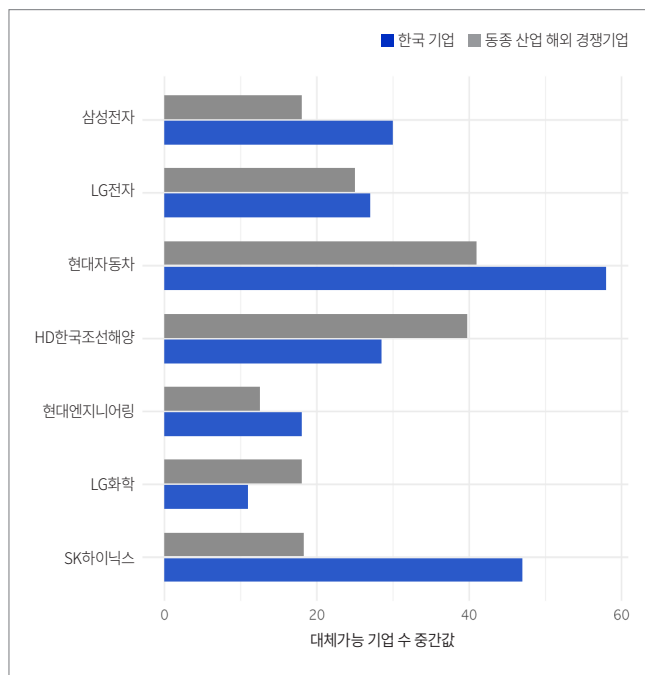


한국 기업 공급망의 거래상대 집중도 및 대체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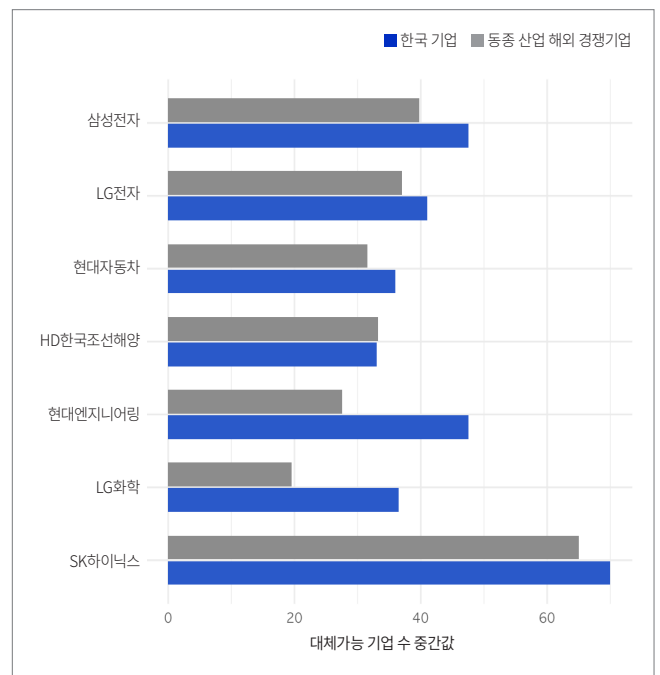
- 공급망의 대체가능성은 공급·구매계약의 대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계약 관계를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로 정의함*
- 한국 7개 기업의 거래 상대 대체가능성을 동종 산업 해외 경쟁 기업(일본·대만·독일·미국 주요사) 중앙값과 비교하면, 산업 평균보다 좁은 대체 풀에 노출된 기업은 공급계약 측에서 LG화학(11 vs 18)과 HD한국조선해양(28.5 vs 40)이 공급망 다변화 정책 우선 검토 대상이 됨

-그 외 5개 기업은 공급·구매 양측 모두 산업군 중앙값 수준 이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구조적 약점이 아닌 산업 자체의 좁은 글로벌 경쟁 구조를 반영.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세계 중앙값 대비 다변화 우위가 확인됨

[그림 4] 공급계약 집중도 및 대체 가능성



[그림 5] 구매계약 집중도 및 대체 가능성



* 거래 대상(공급/구매 계약 상대)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해당 거래 대상과 유사한 글로벌 공급망 활동량(계약건수)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분포를 기준으로 측정.
자료: FactSet Global Supply Chain Database(FactSet 데이터는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공개 유인이 낮은 공급망 관계는 구조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단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기업 단위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

-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정책은 상품, 산업, 국가 단위에 집중되어 왔으나, 실제 공급망의 설계와 운영은 기업 간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 사후적 개별 사건 대응에서 통합적, 선제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려면 기업 단위 분석이 필수

기업 단위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단일 데이터셋으로는 본질적 해결이 어려우며, 상업데이터, 공공데이터, 기업 서베이의 결합과 교차검증을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주요국 동향과 한국의 위치

- 미국(EO 14017, CHIPS Act, DPA 제705조), 일본(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의 11개 특정 중요물자 지정 및 공급확보계획 제출 의무화), EU(CRMA, CSRD) 등 주요국들은 이미 법령에 근거한 기업 단위 공급망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준비/운용 중
- 한국 공급망기본법은 선도사업자 제도(제19조)를 통해 기업 단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1) 신청기반의 자발적 참여에 한정되고, 2) 경제안보품목으로 사전 지정된 영역에 한해 작동하며, 3) 공급망 위험도 진단·분석을 위한 상시적, 체계적 정보 수집 기능은 부재함. 즉, 인센티브 기반의 선택적 참여 체계는 있으나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미비

핵심 기업 중심의 선제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

- 노출도가 높은 기업을 위주로 한 상시 점검 체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참여대상 기업 확대와 참여기업 인센티브가 필수. 예시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참여대상 확대: 공급망기본법을 확장하여 자발적 신청 트랙 외에 SIF(시스템적 중요 기업) 의무 등록 트랙을 신설. 자료 제출은 제 31조 정부 자료요구권을 정기·체계적으로 확장
- 참여기업 인센티브: 1) 공급망기본법 제27조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활용 우선권 2) 정부 분석 결과(자사 공급망 위험도 진단, 대체 공급망 후보 리스트) 데이터 환류 3)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정부 자원 동원 우선 지원

